

◇둔상성 외상에 의한 심장과 대동맥손상

장원기, 김태호, 박상철, 김민호, 구자홍, 조중구, 김공수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배경 및 목적 : 심장 및 대동맥 손상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간주되어왔다. 더욱이 비관통성 외상은 관통성의 경우보다 손상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예후가 좋지않다고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환자는 병원 도착 당시에 전신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진단과 더불어 수술적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

방법 : 본 전북대학교 병원 흉부 외과에서는 1994년 4월에서 1998년 5월까지 경험한 둔상성 외상에 의한 심장 및 대동맥 손상 7예를 비교분석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결과 : 총 7예중 심장 압전이 3예, 외상성 흉부 대동맥류가 3예, 외상성 대동맥 판막 폐쇄 부전이 1예 이었다. 원인으로 교통사고에 의한 경우가 6예, 말발굽에 채이어 발생한 경우가 1예이었다. 모두 남자 환자이었고, 평균 30 ± 12.1 세이었다. 응급실 도착 당시 2예에서 수축기 동맥압이 80 mmHg이하였다. 그외 예에서는 의식이 명료하였으며 수축기 동맥압도 100 mmHg이상 유지되었다. 주 증상은 호흡 곤란과 흉통으로 의식이 있는 모든 환자에서 보였다. 동반 손상은 흉골 골절 2예, 늑골 골절 2예, 혈흉 2예, 사지골절 2예 등이었다. 단순 흉부 사진과 심장 초음파로 심장 압전이 의심된 경우는 진단 즉시 수술을 시행한바 사고 발생후 6시간이내 수술을 시행하였다. 대동맥류가 의심되는 경우는 대동맥 조영술을 시행하고 응급 수술을 시행하였다. 이때는 수술 시작은 사고로부터 24시간이내이었는데, 한예에서는 20일째에 발견되었다. 외상성 대동맥 판막 폐쇄 부전의 경우 일주일째 심장 초음파로 진단하여 수술을 시행하였다. 심장 압전인 경우 2예는 우심방 손상, 1예는 우심실 손상이었는데 단순 봉합술을 시행하였다. 외상성 대동맥판 폐쇄부전은 판막 재건술을 시행했다. 대동맥손상중 수술을 시행한 2예는 모두 좌측 쇄골하 동맥 기시부 직하방에서 동맥류화 되어 있었다. 인조 혈관을 이용한 재건술을 시행하였다.

결론 : 모든 수술 예에서 술후 12일째 퇴원이 가능하였고, 대동맥 손상 환자는 술후 대동맥 조영술을 시행하였다. 지속적인 불안정한 혈액학적 상태를 보인 환자는 결국 수술을 시행하지 못하고 손상 5일째 사망하였다. 심장 및 대동맥 손상을 받은 환자에서 안정적인 혈액학적 상태를 유지하며 즉각적인 교정 수술로 특별한 합병증 없이 치료할 수 있었다.

책임저자: 조중구(전북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발표자: 장원기(전북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